



광주시교육청이 마련한 '신산업분야 직업 체험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이 시코딩 기술을 접목한 목공기초 과정을 배우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교육청, 중학생 진로 설계 돕는다

신산업분야 맞춤형 직업교육 진행
직업계고 인식 제고·진로탐색 기회
12월까지 3~4시간 교육과정 참여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광주 중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신산업분야 맞춤형 직업교육을 운영한다.
'신산업분야 직업 체험 프로그램'은 직업계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고,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직업교육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진 시교육청 직업교육지원센터 스마트캠퍼스와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전남공업고등학교, 광주

자연과학고등학교 등 3개 거점학교에서 진행된다.
희망 학생은 7월, 10월, 12월 중 날짜를 정해 3~4시간 상당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9~12일 진행된 첫 프로그램은 106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스마트캠퍼스, 광주전자공고, 전남공고 등 3곳에서 운영됐다.
스마트캠퍼스에서는 반도체 제조공정, 협동로봇, 자율주행, IoT를 체험했으며, 광주전자공고에서는 하이브리드, 전기, 자율주행자동차 시스템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전남공고에서는 IoT드론, 건축, 화학공학 교육이 이뤄졌다.
오는 10월, 12월 프로그램은 이들 3개 기관·학교를 포함해 광주자연과학고에서도 도시농업, 반려동물, 제과·제빵, 동·서양조리 등 4개 과정을 추

가로 선보인다.
시교육청은 지역 학생들이 AI 기반 신산업 사회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할 계획이다.
일신중학교 3학년 김준희 학생은 "AI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다양한 진로에 흥미를 갖게 됐다"며 "직업계고에서 배우는 기술이 생각보다 더 다양하고 유용하다는 걸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전통적인 산업에 맞춘 직업교육에 벗어나 시대에 맞는 직업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직업계고 학생은 물론 중학생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도 다양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교육청, 청렴문화 정착...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부패 리스크 식별 예방·통제
국제표준 'ISO 37001' 부여

전남교육청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 인증을 획득하며 청렴 문화 정착에 다가가았다.
ISO 37001은 조직 내 부패리스크를 식별하고 예방·통제하는 국제표준으로, 글로벌 수준의 반부패 관리 체계를 갖춘 기관에 부여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인증을 통해 부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윤리적 책임경영 기반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앞서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인증 준비에 착수하면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부패위험요인 식별 및 리스크 평가, 교육훈련, 내부심사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행했다.
이를 위해 ISO 37001 인증 전담 협의체를 구성하고, 부패방지 업무지침 마련, 실행계획 수립, 외부심사 대응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심사기관인 (재)한국품질재단은 전남도교육청



김대중(왼쪽에서 네번째) 전남도교육감이 지난 16일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 인증서를 들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의 부패방지 정책 추진 의지, 실행 체계의 적합성, 전 직원의 인식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인증을 최종 승인하고, 16일 전남도교육청에 인증서를 전달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청렴정책단, 청렴도향상대책이행단 등 기존 반부패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학교 현장 중심의 청렴문화 정착

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재기 전남도교육청 감사관은 "ISO 37001 인증은 단순한 제도를 넘어 전 직원이 함께 만들어낸 청렴문화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실천 중심의 반부패 청렴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도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청일스 상무, 청년 맞춤 프로그램 '풍성'

광주대 산학협력단 위탁 운영
실전 취업 지원·어학 강좌 등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는 광주 청년일자리스테이션 상무센터(센터장 조유근, 광주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8월 한 달 동안 취업 준비, 자기 이해, 직무역량 강화, 일상 회복, 연결과 교류 등 청년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8월 프로그램은 ▲실전 취업 지원 ▲어학 강좌 ▲진로 탐색 ▲직무 체험 등으로 구성돼, 다양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점이 특징이다.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NCS마스터클래스', '자소서 리터치 클리닉', '면접핏 클래스', '합격을 부르는 면접 코칭' 등이 운영된다. 특히 모의면접과 자소서 첨삭은 실제 채용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전형으로 진행돼 참여 청년들

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서적 안정과 자기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독서여정x문장수집', '예술모음-케이꾸오브제/오일파스텔', '기록형 월간책 만들기' 등은 단순한 강의 형식을 넘어 직접 체험하고 표현하는 구성으로 운영된다.
이 밖에도 '중국어, 차이나GO!', '일본어, 니혼GO!',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회화' 등 어학 프로그램, '나만의 퍼스널컬러찾기', 'E-TEST(엑셀/워드)' 등 자격 과정, '목돈 굴리기&부동산지식'과 같은 이색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청년성장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가 협력하여, 만 15~39세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일환인 광주 청년일자리스테이션은 취업과 창업, 일상 회복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홈페이지 및 신청 링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남대 RISE사업단, 리빙랩 프로젝트 간담회

주민 의견 청취 협력 방안 논의

호남대학교 RISE사업단(단장 정재평)은 최근 광주시 서구 화정2동 행정복지센터 꿈지락홀에서 '리빙랩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지역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연철 e스포츠산업학과 교수를 비롯해 이형숙 화정2동장, 염규옥 광주광역시 서구청 자원순환과 팀장, 유미란 서구청 청소관리팀 팀장, 화정2동 통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주민이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실험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리빙랩(Living Lab)' 기반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출발점의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
정연철 교수는 리빙랩의 개념과 목적, 국내외 적용 사례 등을 소개하며, "행정 중심의 문제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체가 되어 실험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진정한 지역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생활 속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태양광 기반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설치와 공유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주차 공간 실시간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는데, 모두 리빙랩 실험 주체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단은 실험 가능성 및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향후 '서구 아이디어 발굴단' 운영을 통한 실험 설계 및 시범 적용 단계에서 주민 제안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 창업동아리 '인액터스 BUZZLY팀', 전국대회 3위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 창업동아리 '인액터스 BUZZLY팀' (지도교수 경영학부 박정철)이 최근 '2025 인액터스 전국대회(National Competition, 이하 NC)'에서 최종 3위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5월 수상한 현대해상 씨앗 경진대회 3위에 이어 두 번째 연속 입상이다.
NC는 매년 7월에 열리는 전국 최대 규모의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로, 현대해상 외 11개 기업이 후원하고, 인액터스 코리아가 주최한다. 대회에서는 전국 26개 대학의 인액터스 팀이 참여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이번 대회에는 40명 이상의 스타트업 대표, 기업가, 인액터스 동문 심사위원이 참여해, 각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임팩트, 지속가능성 등을 심

사했다.
BUZZLY팀은 예선전(Preliminary)과 세미파이널, 파이널 리그를 거쳐,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을 제치고 최종 3위에 오르며 역량을 입증했다.
이들이 발표한 'BUZZLY' 프로젝트는 친환경 미생물 기반 응에 방제 솔루션을 통해 껌벌 개체수 감소와 양봉농가 피해라는 심각한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실제 실증 실험과 현장 검증을 통해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특히, 재구매율과 전환율을 기반으로 한 경제모델과 해외 시장 진출을 고려한 글로벌 전략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실질적 비즈니스로의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인공알로에

건강기능식품 1000ml x 3(총 3,000ml)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입니다.